

하나님의 주권

사도행전 21:37-22:21

37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 때에 바울이 천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38그러면 네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39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음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40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총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중용히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1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2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중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3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는 자라 4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5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6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취매 7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8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9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10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11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12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13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14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16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17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18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19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20또 주의 증인 스테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뜻을 지킨줄 저희도 아나이다 21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모두를 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은 우리 BVC에게 정말
풍성하고 감사한 주말이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또 하나의 강력한 간증을 들었고, 지난 한
주 동안 더 많은 소그룹 모임들이 있었으며, St. Vincent de Paul Food Kitchen에서 함께 섬기며
정말 복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교회 조명도 조금 손을 봤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지만,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BVC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Bridge of the Valley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는 금요일에도 이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하나님의
주권(The Sovereignty of God)”은 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게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얼마 전 그 친구가 사업장에 새로운 CCTV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물론 오래된 카메라를 교체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었지만, 처음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친구와 직원들은 서로의 모습을 돌려보며 재미있어했습니다. “누가 쓰레기를 버렸지?” “점심 먹고 더러운 점심을 그대로 두고 간 사람이 누구야?”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얼마 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하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아내가 남편에게 점심을 가져다주기 위해 사업장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아무도 없어서 잠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앞으로 나왔고, 아내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점심을 한쪽 구석에 놓고 간다는 뜻으로 눈짓을 했습니다. 점심을 그곳에 내려놓고 아내는 돌아갔습니다. 아내의 기억으로는 분명히 두 사람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신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점심을 놓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손님 응대를 마친 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심 언제 가져다줄 거야?” 여러분도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아내는 남편이 정신이 어떻게 된 것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나 아까 갔었잖아! 우리 서로 눈도 마주쳤고, 내가 가게 구석에 점심도 놓고 왔잖아!” 하지만 제 친구는 아내가 점심을 들고 왔던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로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심지어 제 친구는 아내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이기까지 했고, 아내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술 마셨어? 아니면 무슨 약이라도 한 거야?” 물론 저는 그 친구가 술도 마시지 않고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분명히 자기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시간 뒤, 그는 그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지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믿겠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두 눈으로 분명히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사 재판에서 목격자의 증언이 생각만큼 신뢰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는 결정적인 목격자가 등장해서 범인을 감옥에 보내는 영웅처럼 묘사되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눈과 귀는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잘못 보거나 잘못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각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눈도, 귀도, 감각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의 도덕적 판단이나 선택, 또는 우리 자신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평안을 주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는 이제 막 예루살렘에서 죄수가 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 위에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영역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 위에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1장 37-40절을 보면, 성난 군중으로부터 바울을 구해낸 로마 군인들과 바울 사이에 흥미로운 대화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군인에게 그리스어로 말을 합니다. 로마 군인은 처음에는 바울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이 당시 지식인들이 사용하던 언어인 그리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혹시 바울이 과거에 4천 명의 자객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던 이집트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이 이집트인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소는 로마 사람들도 알고 있을 만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군중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허락을 받은 바울은 이번에는 군중들에게 히브리 말로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ESV 성경은 사도행전 21장 40절에서 이를 “the Hebrew language,”** 즉 “히브리 말”이라고 번역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아람어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학자들과 랍비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사용했던 언어는 고대 히브리어, 즉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였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아람어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가정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하며 성장했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말하듯이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공부하며 성경의 히브리어를 배웠으며, 집 밖에서는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이자 국제적인 도시였던 다소에서 그리스어를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부터 그의 삶 가운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바쁜 삶이었겠습니까! 바울이 어린 시절 아람어를 말하고, 시장에서는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학교에서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라날 때, 훗날 이 세 언어가 오늘 본문과 같은 순간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함께 사용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 추측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나친 추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정체성의 모든 부분은 처음부터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처럼 독실하고 형편이 좋은 유대인 가정이라면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결국 바울은 가말리엘에게 배우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보내졌습니다. 가말리엘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35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피닉스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는 것과 비슷한 거리입니다. 오늘날에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당시에는 정말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만 자라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인 이 사도가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하시고, 동시에 예루살렘에서는 바리새인으로 철저하게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헬라 문화에 대한 이해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당시 그리스 학자들과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로마 군인이 잠시 바울을 이집트 테러리스트로 오해했던 사건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능숙하게 그리스어를 구사했기 때문에 군인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위험한 반란군의 모습과 바울이 사용하는 세련된 그리스어가 서로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처음으로 폭행이나 죽음의 위협을 경험한 사건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돌에 맞기도 했고 여러 차례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려는 테러리스트라는 엄청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침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날 정부가 우리를 체포하고, “당신은 백악관을 불태우려고 하는 테러 조직의 일원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침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침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정체성 위에 주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성장했는지,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의 정체성을 형성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정체성을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서 자랐는지,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중학교 시절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람이 있었는지,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며 경험했던 아름다운 추억들, 나 자신이나 사랑하는 가족에게 찾아왔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질병과 어려움들까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경험들이 여러분을 빚었고,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Bridge of the Valley**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정체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정체성과 경험과 은사를 담대함과 기쁨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삶의 한 부분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 위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2.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과 후, 여러분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여러분,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유머 감각을 가지고 계신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죽기까지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들을 체포하고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했던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새롭게 시작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테반의 죽음을 지켜보며 그것을 승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죽이기 위해 가던 바로 그 길에서 바울은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자들의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오히려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하려 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우리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닐까?” 그들은 바울을 믿을 수 없었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셨을까요? 차라리 착하고 순종적인 유대인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쉽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 적도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도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사도가 갖추어야 할 모든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순교에 가담했던 바로 그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셔야 했을까요? 그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옳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했던 모든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과거까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사역으로 부르셨을 때, 그의 과거의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것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에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정리한 다음에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잘못과 죄를 완벽하게 바로잡은 후에야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직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때조차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깊은 옥상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너무나 거룩했기 때문에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러 가고 있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부족함과 죄악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삶은 **180도**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여러분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자기가 말하는 그런 사람이 맞을까?”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신 것이 맞을까?” 사람들은 바울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 나는 너무 망가졌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또 누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너무나 많은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이 필요한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이 사라지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로 인한 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충분했습니다.

세상은 자격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은사를 보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어떤 직업이나 역할을 맡기 위해 필요한 자격(qualification)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영어에는 “He is straight out of central casting”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한 역할에 너무나 잘 어울려서 마치 그 역할을 위해 캐스팅된 사람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배우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직업이나 직책에서도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역할에 적합한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과거 행동과 경험을 살펴보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태우고 피닉스에서 파리까지 비행기를 조종할 파일럿이라면, 저는 여러분이 이전에 비행기를 조종해 본 경험이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분별하고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과 은사를 보여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교회에 행했던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과, 다른 사람에게 차마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과거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과거 때문에 우리가 섬기지 못하도록 제외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여러분을 주님의 나라를 섬기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까? 과거에 정말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셨습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셨습니까?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준 상처 때문에 과거의 트라우마와 고통 속에서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 여러분을 치유해 달라고 구하십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이 어려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내주시기를 구하십니까? 저는 기꺼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जाएगा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함께 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날 아무런 과정도 없이 갑자기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모든 불안과 연약함과,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여러분이 받은 모든 상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었던 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어쩌면 정말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악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능력과 힘과 담대함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강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은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역 위에도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3.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역 위에도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2장 19-21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나도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쩌면 자신이야말로 유대인들을 섬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유대인들이 직접 보게 된다면 얼마나 큰 도전과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는 이방인들에게로 가라.”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사역 가운데 실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이 분명히 그러했습니다. 저는 우리 대부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빚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신의 사역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구원까지 포기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들, 자신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향한 그의 사랑은 진실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향한 그의 안타까움도 진실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그의 열망 역시 진실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방인들에게로 가라.”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도 사역의 방향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왔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막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사역 가운데 방향을 잘못 판단했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함께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기를 원하셨던 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때로는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바울에게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경험과 전문성은 모두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안테나를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통해 그분으로부터 올바른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다시 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분의 비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안에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더 적어지고 하나님은 더 많아지시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너무나 잘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사역의 청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깊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는 점점 커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 생각해 낸 그 아이디어가 아무리 훌륭해 보인다고 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어쩌면 유대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의 계획만큼이나 훌륭하고 논리적인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우리의 안테나가 성령님께 더 정확하게 맞추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에 더욱 정확하게 맞추어지고, 우리가 더욱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 갈수록 성령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듣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계획이 아무리 옳아 보이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제한적일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주시는 비전을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비전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비전 위에 굳건히 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역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비전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 이유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조금 유치한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아주 깊은 이유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기에 실수하는 사람이 나 혼자만은 아니라는 사실에서 어느 정도 위안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조차 때로는 방향을 잘못 잡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솔직히 저는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앞에서 CCTV에 관한 제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보았듯이,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의 눈조차 온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도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양자물리학과 인간의 의식에 대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발견들을 통해 현실과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의 경계에 대해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Bridge of the Valley**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위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BVC**가 되기를 소망합니다.